

보도시점 2023. 6. 2.(금) 15:30 배포 2023. 6. 2.(금) 10:00

마약과의 전쟁, 정부 역량 총결집

-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'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
-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'펜타닐'의 국내·외 동향 및 관리 방안, 마약류 수사·치료·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확충 등 논의

-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(금) 14: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'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'를 개최하였다.
 - * 참석자 : 교육부, 외교부, 법무부, 대검찰청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찰청, 해경청, 관세청, 방통위, 국과수, 권익위, 국정원 등
- 이번 회의에서는 「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(23.4.18 발표)」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'펜타닐*'의 국내·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.
 - *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, '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,450명(66%)이 합성 오피오이드(주로 펜타닐)로 추정, 성인 18~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
- 또한,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·치료·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 및 교육·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“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,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”며, “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현진 (044-200-2379)
		담당자	사무관	고대웅 (044-200-2382)
<공동>	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주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숙 (043-719-2804)
	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희권 (044-203-6877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환 (044-203-6547)
<공동>	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	책임자	과 장	김진아 (02-2110-38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균 (02-2110-3703)
<공동>	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	책임자	과 장	이민열 (02-2110-361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장훈 (02-2110-3388)
<공동>	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	책임자	과 장	송중일 (02-2110-3340)
		담당자	서기관	강신원 (02-2110-3788)
<공동>	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	책임자	과 장	이재신 (033-902-5410)
		담당자	연구관	장문희 (033-902-5414)
<공동>	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승일 (044-202-3870)
		담당자	사무관	강현진 (044-202-3871)
<공동>	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동규 (02-2100-7581)
		담당자	행정관	조주이 (02-2100-7585)
<공동>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윤웅현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비 (02-2110-1564)
<공동>	대검찰청 마약과	책임자	과 장	김보성 (02-3480-22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학 (02-3480-2292)
<공동>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천정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조흥래 (042-481-7702)
<공동>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백승언 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	이주만 (02-3150-2171)
<공동>	해양경찰청 형사과	책임자	과 장	김지한 (032-835-2058)
		담당자	경 감	김기석 (032-835-2161)
	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	책임자	팀 장	박희정 (044-200-7241)
		담당자	사무관	정현준 (044-200-7205)